

대청댐 기행문

20141621 황의정

8조 밟고보니 대청댐이조 조장: 박종호

조원: 김태훈 장우석 오유나 이상민 한종민 김현정 황의정



개교기념일에 대청댐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 ‘다들 쉬는날에 왜 굳이 힘들게 자전거를 탈까’ 하지만 점점 그 날이 다가올수록 불만이 설렘으로 바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자가 가져올 준비물도 정하면서 기대가 됐다. 하루전날 자전거를 못 빌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쉬웠다. 하지만 결국 대여를 했고 4월 15일 한밭수목원에서 조끼리 출발을 했는데, 조장인 종호 오빠가 늦게 와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빨리 앞 조를 따라가면서 일찍 도착은 못했지만 낙오 없이 모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다. 자전거는 2인용 자전거와 1인용 자전거가 있었는데, 2인용 자전거도 타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1인용을 타고 싶었고, 결국 1인용을 타게 되었다 높기도 조절해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조는 엑스포 다리를 건너서 자전거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다시 돌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야 했다. 돌다리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는데 생각보다 물살이 센 부분이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다. 그리고 돌다리를 다 건넌을 때 우리조인 현정이가 마지막 돌을 밟고 올라올 때 발이 빠졌다.. 그래서 한쪽 발이 물에 완전 젖어버렸고 대청댐에 도착할 때 까지도 마르지 않아서 짹짹하게 현정이는 계속 달렸다.. 그래도 발만 젖고 큰 사고로 이어지

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날씨도 좋았고 자전거도 고장 없이 잘 달려서 mp3를 들으면서 달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안왔으면 후회를 했을 꺼 같고 또 선배님들과 서로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됐다. 가면서 앞서 달리던 2인용 자전거를 탄 종민이와 상민이, 그리고 유나 언니가 뒤쪽에 가던 나머지 조원과 너무 멀어져 버려서 거의 도착을 했을 쯤에는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아쉬웠다. 떨어진 조원과 같이 가면서 목이 너무 말랐고 중간에 물을 사먹을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서 조장인 종호 오빠가 시원한 물을 사줘서 다시 힘을 내서 달렸고 도착해서는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다. 내가 프라이팬과 집게를 담당 했는데 가져온 집게에 비해 집어야 할 고기가 너무 얇아서 집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나무젓가락으로 구워야 했다.. 쌈장과 김치도 너무 맛있고 맥주도 마시고 기분도 좋아졌다. 특히 김치가 너무 맛있었다. 다 먹고 다시 한밭수목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다같이 가다가 또 거리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너무 힘들었다.. 다리도 너무 아팠고 내리막길도 많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힘들었다. 중간에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설수록 더 힘들었고 차라리 빨리 도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에 유나언니와 종호오빠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계속 졸졸 따라갔고 도착을 했을때는 돌아오는 길에 물을 못 마셔서 너무 갈증이 났다 조원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 한슬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줬고 먹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조원을 기다렸다. 대청댐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먼거리를 달린 적이 처음이라 내일 1교시 수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다시 한밭수목원 까지 도착하는데 모든 조원이 동시에 오지는 못했지만



부상자 없이 무사히 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다시 가는데 올때는 택시를 타고 와서 버스노선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고 핸드폰으로 찾아서 집에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다리도 저려서 서있지도 못하겠고 열도 나고 머리도 쭈셨다. 평소에 운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해서 몸에 무리가 온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아파서 누워있었고, 라면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다음날 수업은 결국 가지 못했다.. 늦잠을 자버렸다. 자전거를 탈 때 동생이랑 타거나 혼자 탔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5명씩 6명씩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험 끝나고 날씨가 좋은날 동생이랑도 가기로 약속을 했다. 조원이 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집에 갔다. 정말 올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는 거 같아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지 않은 걸로. 가면서 한밭수목원에서 어린애들이 광장에서 타는게 있었는데 그것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도 이런 학교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야겠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서로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을 남겼고, 재미있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가서 더욱 즐거웠다.

